

까마귀 백번 분칠한들 백로가 되랴

— 적외본당의 당명개정놀음을 두고 —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또 당명을 바꾸었다고 한다. 새 당명은 피이하게도 《국민의힘》이라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에 의해서 력대로 라도되어온것이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들이 아닌가. 그 라도대상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뽀뽀스럽게 당간판에 내걸었다. 그러면서 새 당명의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자기 당의 힘이 인민들로부터 나온다는것인데 가을베꾸기같은 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지지가 아니라 배척을 받고 사망적인에 이른 《국민의힘》이다. 지지가 있어야 힘도 생기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사회의 한측인 진보세력에게 발도 못 붙이고있는 형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중도세력도 《국민의힘》편이 아니라 말그대로 중간세력이다. 이 중도세력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아 지난 4월선

《국민의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고 제법 해석까지 달아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해석인가. 거에서 취찬한 패배를 당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그런대로 의지하고있는것이 전통적인 보수지만인제 그것은 보잘것없는 세력이다. 실상은 이러한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자화자찬하였으니 삶은 소대가 리도 웃을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국민의힘》과 그의 력대 조상들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부패보수의 상징이었던 인민들을 대표해본적이 없다. 《자유당》의 명칭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때로부터 오늘의 《국민의힘》에 이르러까지 이 당의 흥락은 력사에 하나도 관통되는것은 인민들이 배척하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이며 독재와 부패이다. 당의 체질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인민들 그 인민인데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운운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언어도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의 대중적지향을 외면하고 시대발전의 흐름에 역행해서 《보수꼴통》, 《수구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다. 이런 부패한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힘을 행사하겠다는것은 언어의 회롱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겠다는것이 속에 품은 진짜생각일것이다. 《국민의힘》이 말은 번드레하게 하는데 이 당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언제 한번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해본적도, 위해본적도 없다. 이 당의 뇌리에는 남조선인민들이 개나 돼지로 각인되어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를 달라는 인민들에게 최후란을 무차별 퍼부었고 때로는 끈봉으로 내려치고 때로는 계엄군의 사적과녁으로 삼았다. 광주대학살과 그후의 사태들이 보여주듯 이 당의 력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조상들은 남조선인민들을 《폭도》로 몰아 탄압하고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도 눈심 하나 까박하지 않는 야만의 무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인민을 위한다? 그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알락한 속입수에 누가 속겠는가. 《국민의힘》이 지금껏 행사해온것이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허위와 기만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으로 가득찬 《공약》뿐이었고 선거후에는 정쟁만 일삼아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고 사회를 끝이 없는 정치적혼란속에 몰아넣어온것뿐이 아니다. 지금도 인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대류행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에선 아무것도 안하고 정치병환을 부추기고 저들만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여 인민의 지탄을 받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시종 남을 헐뜯고 물어메치는가 하면 지어 제편끼리도 권력이라는 고기덩이를 먼저 차지하겠다고 으름대며 싸우는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남조선 《국회》가 《싸움국회》로 오명을 떨치고 민사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국민의힘》의 《공로》가 상당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르는 사람이 없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간다고 한생토록 싸움질만 하고 사람들을 리간시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철이 들어 인민들을 통합한다? 어처구니없는 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속이려고 당의 간판에 《통합》을 내걸었다가 민심의 예리한 눈초리에 사형선고를 받고 내리웠는데 또 《통합》을 운운하며 인민들을 우롱기만하고있다. 보는것처럼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기만이다. 그에 속히울 사람이 과연 남조선에 있었는지. 민심의 눈을 언제나 정확하며 민심은 위선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인민들을 또다시 속여보려고 《국민의힘》이라는 병거지를 썼지만 총당에는 분노한 인민의 드세찬 힘에 의해 최후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 각계의 평가이다. 당명을 아무리 바꾸어도 이미 기울어진 부패보수집단의 운명을 구원할수는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실용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을 끌어당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련일 현 당국의 잘못된 쪽수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대표의 견해를 저들과 같다느니, 《국민의당》과 언제나 같이 갈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것만큼 이제 그들의 결집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국민의당》을 희유하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주요인물들속에서는 《안철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국민의당은 반문재인연합대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 대표를 다음에 선거에서

서울시장후보로 내세울수 있다고 추파를 던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당》은 변화하고있는 《국민의힘》과 손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권연대》를 공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과 《국민의당》이 보수야권련대를 운운하는 여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계산이 놓여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을 끌어당겨 보수야권련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중량은 따로따로 하고있는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선거를 계기로 보수통합을 떠들면서 《국민의당》계열의 여러 인물들을 끌어당겨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권력을 쫓아 정치판에 뛰어들어 이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박위인생》을 살아온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야권련대에 머리를 기웃거리려는것은 권력의 뺨부스레기라도 얻어먹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있기때문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정치계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련대놀음을 두고 《정치야심가들의 동상이몽》이라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민심이 요구하는 쪽이 아닌 권력만 쫓아 제 리속만 차려려 하는 이런 보수야당에 민심의 싸늘한 눈초리가 따르는것은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변신하여 생겨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우보수들 거지들과의 관계문제를 놓고 저마름 옥신각신하고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우두머리들은 《과거와의 단절》이 없이는 《당혁신》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관과 리명박구속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우보수세력과의 《결별》, 당내 경경보수파들에 대한 《정리》로 저들이 《새롭게 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력설해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 리명박파들이 《전통적인 지지를 버려서는 안된다》, 《뿌리가 없는자들이 당에 들어온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어 당내가 혼동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여론들은 《국우보수와의 《결별》은 언어도단》, 《또 하나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대국민사과》이라며 한결같이 야유조소하고있다. 그럴만도 없다. 사실 명칭이나 다를뿐이지 《국민의힘》것들이나 《태극기부대》와 《엄마부대》와 같은 국우보수꼴통들은 다 뭉개야 뭉수 없는 한몸통이나 다름없다는것이 세간의 평이다. 지난해 보수꼴통들 다리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별려놓은 《범국민집회》들과 각종 시위들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층인물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온갖 폭언을 늘어놓는 사실, 명색이 대표라자 《골목강대동맹》이 되어 보수꼴통부대들의 앞장에서 《국회》청사를 점거하고 폭행과 악설을 서슴지 않은것은 이것들이 갈데 없는 한몸통이라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해 주고있다. 더구나 최근 남조선에서 세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의힘》패거리들과의 밀착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것들이 갑자기 아무관계도 없는듯이 아닌보살하며 국우보수꼴통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법석 고아대고있으니 그 속심이 어찌 있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조선인민들의 규탄과 배척을 받고있는 국우보수꼴통들과 《결별》이라는 사기극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어떻게 하나 재집권야망을 이루어보자는것이 《국민의힘》의 진짜 속심인것이다. 설사 어제날의 동반자라 해도 권력추구에 지장이 된다면 원수가 되어 등에 칼을 박는것도 서슴지 않는것이 정치야심가, 음모가, 배신자들의 집합체인 《국민의힘》것들의 너절한 실체이다. 하지만 《국민의힘》패거리들의 낮뜨거운 추태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정치주물, 정치오물들이 모여있는 고안해내고있는 민심기만의 광대극들은 흑백아들어 마이크를 잡고 고성을 질러댄다. 인종사건까지 찍는다 하며 놀이댄 낮뜨거운 추태들은 국우보수와 《국민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세상웃기는

남조선 출판물에 실린 만화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아이찌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교육대상에서 제외한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8월에도 도쿄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낸 소송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민중교육발달책동을 비호두둔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로 말하면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후과로 생겨난 사람들로 일본당국에게서 마땅히 이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제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일본당국은 2010년 4월 재일조선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일본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한 청와대청원글을 소개

지난 3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신문》가 《이름 바꾸자마자 해산청원 등장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였다. 글은 《국민의힘》이 당명개정을 확정하자마자 해산청원글이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있다고 전하였다. 이어 글은 《방역방해 범죄집단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최근 전염병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광훈목사 등 적폐세력의 8.15집회에 대해 지적하면서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을

민중교육발달책동을 반대배척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대중적인 항의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조선민족에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나라이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으로 끌고갔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삼았다. 지어 조선의 말과 글,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까지 없애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과거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고있으며 도리어 력사외교과 군사적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오늘 일본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민족교육탄압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감행되었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복사판으로서 최악의 죄를 덧씌우는 국악무도한 범죄가 아닐수 없다. 일본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민족차별책동에 매달릴수록 우리 민족에게 치러야 할 대가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신기복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한 청와대청원글을 소개

지금까지 키운것은 《국민의힘》이라고 까맣혔다. 계속하여 방역대책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주요발언들을 련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망발을 통해 전염병확산을 일으킨 전광훈세력을 대놓고 두둔하는 한편 《참가하고싶은 당원은 자유롭게 참가하라》고 하는 등 집회참여를

문화제는 단순히 당대 시기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인것이 아니라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고유한 민족성의 상징이며 문화의 발전과 정신도덕생활의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문화제는 학술자로서뿐아니라 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후세에 전해주고 계승을 담보해주는 귀중한 재보로 된다. 그러나 일제는 수십년간의 조선강점기간 조선민족의 넋과 재능이 깃든 수많은 문화재들을 강도적으로 로략질해가는 천추를 두고 엿지 못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벌서 고적유물탐험가 세기노를 두목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여 전조선령토에 있는 민족유산에 대한 전면적이며 전문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15권에 달하는 《조선고적도보》를 작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의 문화재들을 강도적으로 로략질해갔다. 그러나 이것은 《유물보존》이라는 이름밑에 조선의 민족문화유산들을 닦치는대로 로략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테라우정은 1915년에 이른바 《시정5주년 공진회》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한 청와대청원글을 소개

이렇게 되자 박근혜, 리명박파들이 《전통적인 지지를 버려서는 안된다》, 《뿌리가 없는자들이 당에 들어온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어 당내가 혼동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여론들은 《국우보수와의 《결별》은 언어도단》, 《또 하나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거기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버젓이 락탈해간것을 넘두두면 조선의 문화유물들에 대한 일제의 락탈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다. 지금도 일본에는 조선민족의 수많은 유물들이 박물관이나 전시대 등에 비치되어 있다. 오죽하면 일본사람들까지도 《일본(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미를 찬양하고 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일제에 의해 해체 락탈당한 석굴암

최악의 무에 죄를 덧씌우는 나라